

# 도내 최초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

### 임실군, 러우 전쟁사태 영향 사료비 상승세 장기화·한우 가격 하락 등 감안 추진

임실군이 도내 최초로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등 영향으로 사료비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한우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우 농가들의 사료비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축산물이력제를 기준(2024.7.10)으로 한우 사육 농가 중 30두 이하 소규모 농가로, 총 401농가가 8401만1000원의 사료비 일부를 지원받게 예정이다.

농가당 최대지원액은 59만4000원 이내로 30두분까지 최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리당 1만9800원의 사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료 구입비 인상분 차액 지원은 농가당 최대 30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실군이 도내 최초로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임실군 한우 사육 농가는 619곳 20,16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번 사료비 차액분을 지급받는 농가는 65%에 해당하는 401농가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송아지 생산 비율이 높아, 밀소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군은 7월 중 해당 읍·면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및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한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공급

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사업으로는 △조사료수확제조비지원사업(21,969톤) △조사료용량비율지원(2,252톤) △근포사일리저첨가제(1,000톤) △한우갈집지원사업(630대) △한우보정잡감장치(1000개) △한우해충방제등(300개) △한우자동급수기(400개) △한우축분처리장비지원(5대) △한우수정당이식 (125두) 등이 다.

심민 군수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서 최초로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특허 미생물 활용 제품 개발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우리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 출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이 특허 출원한 유산균과 고추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인 '우리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우리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은 동부권발전사업의 일환인 휴(休) 메디푸드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LG헬로비전(대표 송구영)과의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 제품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인절미 맛으로 출시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현대의 높은 탄수화물 섭취를 고려해 개발된 '우리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은 맛뿐만 아니라 뛰어난 효소 활성도를 자랑해 기능성에서도 돋보인다.

실제로, 이 제품은 음식물의 분해와 영양소 흡수를 돕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특히 소화효소가 부족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은 소화 불량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아



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제품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리더 판매장, LG헬로비전 채널, 그리고 제철장터 소풍볼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SNS 등에서 곡물 발효제품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순창군 특허 미생물을 활용한 최적의 제품이 개발됐다"면서, "이는 순창군 미생물 산업이 발효 산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사업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특허 미생물을 활용해 다양한 발효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이번 '우리 땅 제철곡물 발효효소 100' 출시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축산분야 FTA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순창군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 판매 실적 등)와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 확대 운영

남원소방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119리본 클럽'을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심폐소생술로 다시 태어났다(리본·Reborn)는 의미를 담은 119리본 클럽을 소생자 외 지원자와 구조자 그룹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한 것으로, 의료·심리전문가, 소생자, 가족, 구조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CASA)와 비슷한 형태이다.

119심정지소생자 연대는 지원자, 소생자, 구조자 그룹의 협업을 통해 실제 경험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며,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 연재이벤트도 지난 17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오수원광어린이집, 사랑나눔 카페 수익금 기탁

### 99만1000원 성금 전달

오수원광어린이집이 원아, 가족, 교사들이 함께 사랑나눔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 99만1,000원을 오수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22일 오수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원아들이 교사들과 함께 직접 참여한 사랑나눔 카페 운영을 통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탁식 참여를 통해 원아들이 성금 마련에서부터 기탁까지 참여하여 지역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다.

이번 기탁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작년 8월 사랑나눔 카페 운영 수익금 1,009,000원을 기탁하여 오수면 저소득 10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오수면은 지역 사랑을 나누는 기탁식에 참여한 원아들에게 어린이 칫솔 세트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수원광어린이집 교직원 일동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원아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카페 운영을 통해 나눔 실천의 현장 교육을 갖게 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경문 오수면장은 "원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이를 계기로 움츠려졌던 나눔문화가 지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성금은 지역의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8월 23일까지 청년협의체 위원 모집

남원시가 민선8기 하반기에 청년정책을 함께 할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을 22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올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이며, 일자리, 주거양육, 복지금융, 참여관리, 교육문화 등 시의 5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 제안과 정책과 의제 발굴, 모니터링, 청년문화 만들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인구청년팀(063-620-6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청년세대는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만큼, 기존 공급자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함께 할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혁신성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 순창군,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우수지자체 선정

순창군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혁신성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 귀농·귀촌 행복박람회'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행사로, 4일간 순창군 귀농귀촌팀과 귀농귀촌협의회가 참여해 순창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귀농·귀촌을 희

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특히, 순창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인 이사정체비, 주택수리비,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순창에서 살아보기, 청년영농실습 등 다양한 사업 홍보에 주력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순창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다"면서,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의 돌파구로써 귀농·귀촌인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